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과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또다시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종합농사소, 휴양각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휴양소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비품들, 기자재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지열냉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잔디와 관상용꽃관목심기 등 휴양소주변과 호안정리를 잘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0월 1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비동원 열의에 맞게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건설공사를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계획대로 드립없이 밀고나감으로써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자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축사들과 아담한 살림집들, 풀판마다에서 구름처럼 पे지어 흐르는 염소, 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한쪽의 그림 같다고, 한적하던 산

골마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육종연구소, 재배먹이풀품종비교포진, 종축우리, 문화회관, 살림집 등 육종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우량품종의 풀먹는 집집송육종 및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널리 보급하는데서 중심기지, 거점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새 집에 입사한 백성진, 윤성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볼수록 장관이라고, 그 어느곳을 돌아보아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떠받들리워 선군조선의 거창한 창조물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리희호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것이며 그가 남긴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을 이어 통일에국사업에 계속 앞장서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주제 103(2014)년 8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전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보내신 화환이 17일 유가족에게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을 김양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화환의 땀기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여》, 《김정은》이라고 씌여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김양진비서가 정중히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국통일의 길에 큰 공적을 남기였다고 하시면서 그 업적은 오늘 사람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절세의 위인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이라고 하시면서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어나가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홍업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친히 조전과 화환, 은정어린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림동원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개성에 도착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이 17일 김양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화환을 보내주신 사실은 지금 온 삼천리에 경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환의 땀기에 씌여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여》, 《김정은》이라는 글발은 절세위인의 한없이 고결하고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을 전하며 8월의 대지에 빛을 뿌리고있다.

그이께서는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것이며 그가 남긴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을 이어 통일에국사업에 계속 앞장서나가기를 바란다고 사랑과 믿음의 글발을 남기시였다.

그리고 절세의 위인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이라는 은정어린 말씀도 보내주시였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 얼마나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믿음의 말씀인가.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길은 먹구름에 가리워져있지만 위인의 숭고한 의리, 통일에국의지가 구절구절 높뛰는 조전과 말씀은 차디찬 분

계선의 얼음장을 녹이며 남녘인민들의 마음에도 화해와 통일의 봄빛을 비쳐주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은 결코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감격도 새로운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을 뜨겁게 맞아주고 환대해주신 이야기는 오늘날 사람들속에

에 새워주시였으며 그의 건강도 해아려 연회장의 의자도 편리한것으로 바꾸어주도록 하는 다심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연회식장에서 대통령과 부인이 따로따로 앉아있는것을 보시고 같이 앉도록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분도 장군님 이시고 우리가 진짜 한가족, 이제야 우리 일가가 만났다고 민족애와 통일의지가 넘치는 뜻깊은 유모아로 좌장을 더욱 화기애애하게 해주신분도 장군님이시였다.

평양상봉기간에 김대중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돌려주

신 뜨거운 환대에 대해 당시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보도물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보여준 따뜻한 정성과 성심, 환대와 수고, 준비와 노력은 국제사회의 국가수반외교와는 비교할수 없는 진한 퍼즐의 흐름이요, 최고의 영접이었다.》고 감동에 겨워 전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치고 남조선으로 돌아간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은 평양에서 받은 뜨거운 환대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으며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러던 그가 뜻밖에도 서거하였다는 비보가 울려왔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심심한 애도의 뜻과 함께 동포애의 정이 어린 조전과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서울에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시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신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시려는 그의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의지가 깃들여있다.

통일의 길에서 맺어진 이 숭고한 의리는 오늘 사상과 뜻도, 품모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 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계속 이어지고있으며 이것은 7천만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거룩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화

환, 은정어린 말씀을 보내주신데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시려는 깊은 뜻과 통일의 의지도 깃들여있다.

그이께서는 2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통일에국의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사이에서 맺어진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년대와년대를 이어 앞으로도 끝없이 흐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